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경운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양 경 수

Department of Child & Social Welfare, Kyung Wo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yungsoo Ya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participants were 410 children aged 3-6 years, who completed scales of the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elf-efficacy. Th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a hypothes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7.0.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Firstly, the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self-efficacy. Secondly, children's self-efficacy was also found to affect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irectly. Thirdly, children's self-esteem have a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주제어(Key Words) :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아버지의 양육태도(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I. 서론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 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부모역할이 점차 변화되게 되었다. 주로 어머니의 책임이었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과 요구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하더라도 어머니와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amb, 1981). 사회변화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들(강혜선, 1987; 김정신, 1999; 김희순, 1984; Biller, 1971; Lamb, 1981)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전반적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성(공정희, 1998; 이영순, 1988; 이지혜, 김정옥, 2009), 사회적 능력(김미영, 2008a;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서보운, 2008), 사회성숙도(윤진주, 2004), 친사회적 행동(김정신, 1999; 설경옥, 문혁준, 2006;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 2003) 등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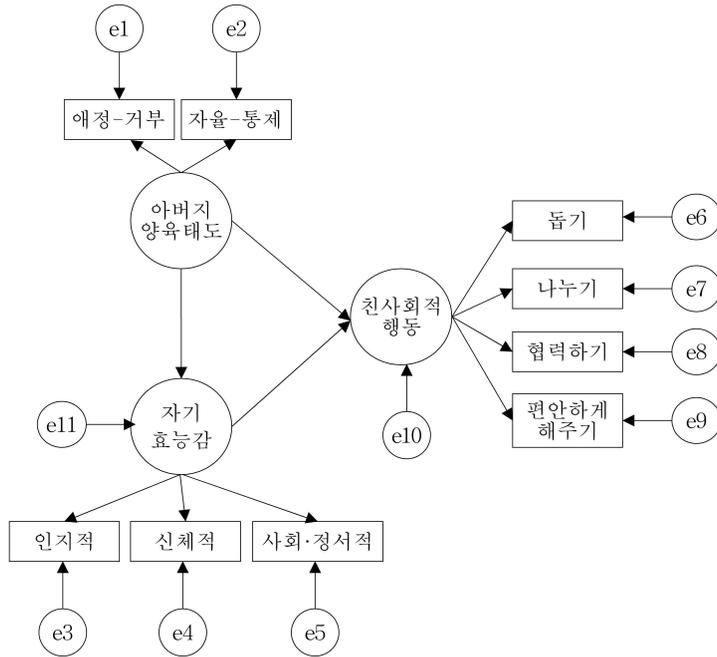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사회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온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 주는 행동들이며(장영숙 외, 2003; Ladd & Profilet, 1996) 구체적으로는 외부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자발적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유아는 일차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친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김정신, 1995; 문혜정, 1995; Bryant & Crokenberg, 1980; Cohn, 1990; Staub, 1971)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뿐 아니라 아버지의 온화하고 따뜻한 태도,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사회적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우정희 외, 2003; 이경숙, 1995; 이영순, 1988; 이회자, 정영숙, 1980; 최한순, 1995; 황선명, 1994)에서도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력성 등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요소들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생각과 대하는 행동

양식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친사회적 행동뿐 아니라 자녀의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최초의 자기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며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내적요인은 가정환경인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우희정, 1994). 즉 인생의 초기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며 나아가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혁준, 1999).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효율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노호은, 2000; 문정희, 2008; 문혁준, 1999; 윤병두, 1994; 이동영, 1997)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일수록 아동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혁준,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한 아동들이 거부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아동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병두, 1994; 이동영, 199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문정희, 2008)에서도 보다 온정적이고 자율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최미향, 2002)에서도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개인의 행동과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소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으로 개인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며(Bandura, 1977)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Maddux, Norton, & Stoltenberg, 1986). 개인이 어떠한 과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자신의 실제 수행능력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의해 더욱 잘 예견될 수 있다(Bandura, 1986).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Baron & Byne, 1991). 또한 송명자(1995)는 자신의 이타적 성향에 대한 판단과 이타적 행동 간의 상관이 높다는 것은 이타적 특성에 관한 자아개념 또는 자기도식과 친사회적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문태형, 2001,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구조회귀모델

이에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관련 변인 중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강수진, 1995; 김미영, 2008a; 김정아, 2010; 김혜경, 2006)에서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강수진, 1995)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영, 2008a; 김정아, 2010; 김혜경, 2006)에서도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의 요소 중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이 정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친사회적 행동 관련요소와 전반적으로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실제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정안나(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을 확인한 바 있다.

Bandura(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직·간접적인 성공 경험에 의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기초한 것으로 성취의 경험이 자기효능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환경적 정보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매개과정에 의해 처리되고 변형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연구들(김아영, 차정은, 2010; 박혜진, 2010; 설경은,

2008; 성은현, 2004; 장경선, 2004; 조은정, 2004; 최윤정, 2009; 한신애, 문수백, 2010)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 영역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개인의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인생의 초기인 유아기의 발달에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높은 자기효능감 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공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고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나 유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될 것임을 예측해 볼 때,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생의 초기 발달에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또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적 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유아의 내적 변인으로 인지적 매개과정(Bandura, 1977)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구조회귀모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만 6세 유아410명과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특성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에 의해 번안되어 국내에서의 타당도가 검증된 것을 황선명(1994)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48문항으로 재구성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은 양육태도를 두 개의 축, 즉 애정-거부의 축과 자율-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태도의 문항과 통제적 태도의 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자율적 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거부적, 통제적태도를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애정적태도, .84, 거부적 태도, .81, 자율적 태도, .74, 통제적 태도, .76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기효능감 척도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의 행동영역을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전인옥(1997)의 '유아 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영역 7문항,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 각 9문항으로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에서 Likert의 내적합치성의 기준에 의해 각 문항

<표 1> 아버지의 특성

	내용	빈도수	백분위(%)
연령	20대	22	5.4
	30대	268	65.4
	40대	115	28.0
	50대	3	0.7
	무응답	2	0.5
	전체	410	100
수입	150만원미만	40	9.8
	151-200만원	63	15.4
	201-250만원	119	29.0
	251-300만원	113	27.6
	300만원이상	72	17.6
	무응답	3	0.7
직업	전체	410	100
	전문직	23	5.6
	자영업	133	32.4
	회사원	142	34.6
	공무원	38	9.3
	기타	74	18.0
학력	전체	410	100
	고졸	71	17.3
	전문대졸	119	29.0
	대졸	133	32.4
	대학원이상	27	6.6
	무응답	60	14.6
전체	410	100	

<표 2> 유아의 특성

	내용	백분위(%)	백분위	내용	빈도수	백분위(%)	
성별	남	197	48.0	독자	81	19.8	
	여	213	52.0	첫째	149	36.3	
	전체	410	100	출생순위	둘째	151	36.8
연령	4세	157	38.3		셋째	29	7.1
	5세	170	41.5		전체	410	100
	6세	83	20.2				
	전체	410	100				

〈표 3〉 측정변인 간 상관 행렬 및 기술통계

사례수(410)

	1	2	3	4	5	6	7	8	9
1	1								
2	.499*	1							
3	.100*	.142*	1						
4	.232*	.219*	.654*	1					
5	.023	.033	.690*	.597*	1				
6	.123*	.114*	.678*	.533*	.686*	1			
7	.217*	.198*	.604*	.501*	.572*	.644*	1		
8	.228*	.186*	.693*	.596*	.614*	.712*	.753*	1	
9	.100*	.113*	.574*	.494*	.686*	.734*	.631*	.703*	1
M	85.56	76.11	23.08	12.76	23.93	12.72	12.24	11.86	13.60
SD	10.24	5.81	4.73	2.75	4.07	2.71	2.87	2.70	2.54
왜도	-.167	-.194	-.430	-.421	-.400	-.554	.310	-.150	-.930
첨도	-.386	-.611	1.110	.610	1.593	.575	2.134	-.057	1.413

주. 1. 애정적-거부적 양육태도, 2. 자율적-통제적 양육태도, 3. 인지적 자기효능감, 4. 신체적 자기 효능감, 5.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6. 돕기, 7. 나누기, 8. 협력하기, 9. 편안하게 해주기

* $p < .05$

에 대한 반응과 총 척도 점수간의 상관이 낮은 2문항을 제거하고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는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계수는 인지적 영역, .90, 신체적 영역, .84, 사회·정서적 영역,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Weir와 Duveen (1981)의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검사(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 PBQ)와 Doescher(1986)의 수정판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검사(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 Mod-PBQ)를 참고로 이혜주(1996)가 수정·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문항은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편안하게 해주기의 4개의 하위요인에 각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추정한 결과, 하위 영역의 Cronbach's α 계수는 돕기, .78, 나누기, .84, 협력하기, .75, 편안하게 해주기, .78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D시에 위치한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을 무선표집으로 선정한 후, 기관의 허락을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배부한 후, 아버지 양육태도 설문지는 가정으로 보내어 회수하도록 하고 유아의 자기효능감 설문지와 친사회적 행동 설문지는 담임교사가 응하도록 하였다. 42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총 410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및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기술

통계치, 그리고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측정모형을 포함한 구조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구조모형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MO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으며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회귀모형의 부합도와 각 요인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분포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는 각각 왜도 < 2, 첨도 < 7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지표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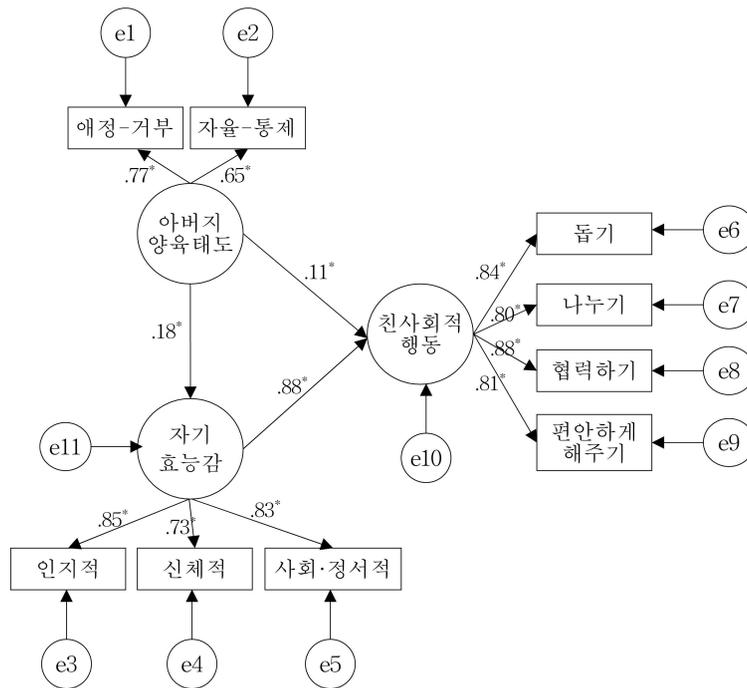
〈표 4〉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잠재변인과 지표변인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t값(Critical Ratio)	표준화 요인부하량
아버지양육태도				
애정-거부	2.10	.538	3.60*	.77
자율-통제	1.00			.65
자기효능감				
인지적	1.20	.06	19.29*	.85
신체적	.598	.04	15.85*	.73
사회·정서적	1.00			.83
친사회적 행동				
돕기	1.11	.06	20.15*	.84
나누기	1.11	.06	18.25*	.80
협력하기	1.15	.06	20.71*	.88
편안하게해주기	1.00			.82

* $p < .05$

〈표 5〉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P	TLI	CFI	RMSEA
측정모델	21	24	144.95	.00	.92	.95	.09
기준			> .50		> .90	> .90	< .10



〈그림 2〉 모수치 추정결과

〈표 6〉 구조회귀모델의 직접효과

관계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양육태도 → 친사회적행동	.03	.01	2.62	*	.11
양육태도 → 자기효능감	.08	.03	2.29	*	.18
자기효능감 → 친사회적행동	.60	.04	16.92	*	.88

* $p < .05$

〈표 7〉 잠재변인들 간 직·간접효과 분해도

변인 간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양육태도 → 친사회적행동	.27	.11*	
양육태도 → 자기효능감	.18	.18*	
자기효능감 → 친사회적 행동	.88	.88*	
양육태도 → 자기효능감→친사회적 행동			.16*

* $p < .05$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이 애정적-거부적 태도, .77, 자율적-통제적 태도가 .6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지표변인인 인지적 자기효능감은 .85,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73,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은 .83의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의 지표변인인 돕기 행동은 .84, 나누기 행동은 .80, 협력하기 행동, .88,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기 행동은 .82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냄으로써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모든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이 .60을 넘어 측정모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검증 및 모수치 추정 결과

본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의 모수치의 수를 나타내는 NPAR이 21, 자유도는 24이며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본 연구의 구조회귀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델의 설정이 신뢰롭고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모델의 모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으며 〈표 6〉에서는 구조회귀모델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직·간접 효과 분해표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 .08, $p < .05$).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경로계수 = .03, $p < .05$) 이것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일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 = .60, $p < .05$). 즉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사

회적 행동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 간의 모든 경로의 전체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모델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모수치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그리고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효과를 미치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에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사회성의 중요한 행동지표인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그리고 유아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선정하고 구조회귀모델을 설정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통하여 아버지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의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돕고,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다른 유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들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이영순, 1988; 이지혜, 김정옥, 2009), 사회적 능력(김미영, 2008a; 우정희 외, 2003; 이선경, 이재연, 1998; Cohn, 1990; Strayer & Roberts, 1989; Swanson, 1988), 사회지능(문태

형, 2001) 등의 사회성과 관련된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김정신, 1995; 문혜정, 1995; Bryant & Crokenberg, 1980; Cohn, 1990; Staub, 1971)에서 아버지의 온화하고 따뜻한 태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태도,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문정희, 2008; 문혁준, 1999; 윤병두, 1994; 이동영, 1997)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이고 온정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본 연구의 결과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최미향(2002)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에 의해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초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다(우희정, 1994)는 것이다. 기존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효능감을 그 변인으로 선정하고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자녀의 발달적 측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강수진(1995)의 연구, 그리고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간에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김미영(2008a), 김정아(2010), 김혜경(2006)의 연구와 같은 맥의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탐색한 정안나(2008)의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친사회적 행동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지능을 설명하는 변인을 알아 본 문태형(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사회지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이 상대적 설명력이 가장 큰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알아 본 김미영(2008b)과 유미영(2010)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같은 인지적 발달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인지발달영역 이외의 발달영역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친사회적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매개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하는 것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이것은 결국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그들의 실제 수행능력보다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믿고 있는 것에 의해 더 잘 예견될 수 있으며(Bandura, 198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다(Maddux et al., 1986). 다시 말하면,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미치며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Schunk, 1981). 본 연구의 결과를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의 이론에 근거하여 종합해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사회성발달의 지표적 행동이 되는 친사회적 행동이 촉진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전반적 발달영역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며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발달적 경로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수진(1995).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혜선(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2008a)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영(2008b).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아영, 차정은(2010).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3), 563-582.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아(2010).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순(198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기 자녀인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호은(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희(2008).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형태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우울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태형(2001). 아동의 사회기능, 자아효능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0(2), 37-48.

문혁준(1999).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22.

문혜정(1995). 유아의 성별, 형제유무,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진(2010). 성격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보윤(2008). 초등학교 2-6학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 **초등교육연구**, 21(3), 467-489.

설경옥, 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

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설경옥(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은현(2004). 어머니의 내적 통제성과 자녀의 창의적 사고력간의 관계에 미치는 자녀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3(2), 27-41.

우희정(1994).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71-90.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2), 91-101.

유미영(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기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병두(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 충족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진주(200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 사회성숙도와의 관계성 연구. **대학원논문집**, 33, 125-136.

이경숙(1995).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경, 이재연(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이영순(198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월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혜, 김정옥(2009).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발달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14(3), 61-89.

이혜주(1996). 친사회적 행동훈련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자, 정영숙(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2), 24-39.

장경선(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

- 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 전인옥(1997).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 24, 657-684.
- 정안나(2008). 유아의 사회적 능력,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향(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2009). 학교적응에 미치는 아동의 수줍음,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 문수백(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5), 441-455.
- 황선명(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on, R. A., & Byne, D.(1991).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s(5th ed)* Newton, MA: Allyn & Bacon.
- Billier, H. B.(1971). *Father, child, and sex role: parental development of personality development*. Monstown Massacuseute: D. C. Health and Co.
- Bryant, B. K., & Crokenberg, S.(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A study of females sibling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54.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Doescher, S. M.(1986). Impact of prosocial classroom and home learning programs on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Ladd, G. W., & Profilet, S. M.(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Lamb, M. E.(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i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addux, J. E., Norton, L. W., & Stoltenberg, C. D.(1986). Self-efficacy expectancy, outcome expectancy, and outcome value: Relative effects on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83-789.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4-384.
- Schunk, D. H.(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3, 93-105.
- Staub, B.(1971). A child in distress: The influence of nurturance and modeling on children's attempts to hel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30-140.
- Strayer, J., & Roberts, W.(1989). Children's Empathy and Role-taking: Child and Parental Factors, and Relations to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27-239.
- Swnson, K. A.(1988). *Child Rearing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Doctoral research paper, Biola University.
- Weir, K., & Duveen, G.(1981). Furth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for use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57-374.

접 수 일 : 2010년 11월 24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월 3일